

출토복식의 보존·보수에 관한 연구

안 명 속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Excavated Costume

Myung-Sook A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2006. 9. 7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xcavated costume representing fundament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t's not a report of a specific case, but it is a guideline that contains the costume and textile of museum collection.

It is not research based on experiments; however, this paper is basically consists of various reported-documents.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1. These are the factors that we have to know to prevent the causes of fabric's degradation.
-Light, -Humidity and temperature, -Microscopic organism, -Insect and rodent animal, -Air pollution, -Ph, -Handling
2. Basic principles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llows are:
-Select the Reversible method, -Represent the easily distinguishable repaired place, -Should be acted by an expert or people with experience, -Before the restoration, accurate and specified records should be completed, -Procedure, treatment method, and materials used should be recorded prior to restoration, -Should be cared minimally, -Be cautious when using the conservation materials, -When caring, make sure nothing is against the principle of aesthetic, historic, and form of preservation
3. The types of restoration are type of straight or curve, type of hole, type of without warp or weft, type of special part damage something like sleeve, collar, type of form that is severely damaged, and type of separated pieces.
4. The method of restoration is sewing, stitching, and the combination of sewing and stitching.
5. The restoration seams are welt seam, plain seam, flat felled seam, french seam etc. And there are kinds of used-sewing, such as, broad stitching, backstitch, half backstitch, basking, hemming, saddle stitching etc.

Key words: conservation, preservation(보존), restoration(보수, 복원),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degradation(퇴화), restoration type(보수유형), restoration method(보수방법)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많은 출토유물들이 출토되어 출토복식의 과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보존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왔다. 반면 출토복식 전반에 관한 보관, 보수 및 복원, 저장, 전시, 운반 등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실질적인 직물 보존처리는 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지역 박물관 등을 통해 직물의 과학적 보존 및 보수처리가 상당한 양에 이를 정도로 실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 인력과 시간의 부족 등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보존처리와 보수하는 데 급급해 자세한 과정을 기술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복원과 보존의 선택은 미(美)적인 감각과 같은 비이성적 요인이 아닌 이성적 요인에 달려있다. 즉 직물이나 복식이 대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복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박물관에 수집된 아이템들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존방법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한다.¹⁾

원래 문화재들은 수리,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화재들의 제작당시의 여건, 제작에 필요한 기술, 제작 당시에 사용되었던 재료 등의 특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옛 선인들이 행하였던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²⁾ 현대에 와서는 제작기술이나 수법 및 재료 등이 변천되어 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더 우수한 기법 및 재료들이 등장해 무조건적인 과거의 고수보다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조상들의 수법과 기술 및 재료를 최대한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싶다.

II. 출토복식의 보존 및 보수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출토복식의 보존처리는 출토된 복식 유물에 대한 세탁과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환경에 의해 훼손된 유물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상태를 복구하고, 나아가 더 이상의 훼손을 최소

화하여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수는 형태가 온전한 것 중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지 발굴 당시부터 옷이 분리되어 있거나 해체되어 있는 것 등을 억지로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

보존이란 용어의 영어 표현으로 보통 Conservation 과 Preservation을 사용한다. 두 단어는 다르다. Preservation은 가능한 한 원 상태의 유지가 목적이고, Conservation은 직물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가능한 한 원래와 비슷하게 외양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재료를 첨가하기도 한다³⁾. 즉 Conservation은 유지를 최종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더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보존을 뜻한다.

보수(Restoration)는 이미 발생되어진 손상을 고치는 것이다. 손상은 비가역적(非可逆的)이며 보수된 유물은 부득이 처리하기 전의 상태와 똑같이 되기가 어렵다. 철학적 경향에 의해 각각의 보수는 유물을 원래 상태로부터 멀어지게 하므로 모든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⁴⁾.

복원은 대상물이 박물관에 입수되었던 상태로 부터 대상물을 바꾼다. 분명히 퇴화된 복원이든 어떤 변화는 대상물의 개별 원래 모습을 감소시킨다. 박물관의 많은 대상물들이 원래 모습이 점점 드물게 되었다.⁵⁾

보존과 보수의 개념을 구분하면 보존은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대상물이 보유하고 있는 원래의 것을 말하고, 복원은 어느 정도의 수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의 것과 가능한 한 가깝게 보일뿐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⁶⁾

보존이나 수선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사용되어진 처리를 주의해야 하고 그들을 분리된 파일로 유지하거나 그들을 목록표에 첨가해야 한다. 이것은 만약 옷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미 행해졌던 것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만약에 어떤 손상이나 변화가 나중에 나타난다면 그래서 비슷한 처리가 미래에 피해질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⁷⁾

Ⅲ. 보존· 보수처리 재료

직물 보존처리를 하는 데 있어 올바른 도구와 장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고 작업자에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⁸⁾ 여기서는 하드웨어적인 보관환경에 따른 실험대나 조명, 환기 등의 장비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보존 및 보수 작업을 위해 실제적으로 작업자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보존용과 보수용으로 구분하여 분류해서 살펴본다.

1. 보존처리 재료

보존용 재료는 거의 과학적인 조사이므로 실험 기기 등이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오래된 직물의 섬유 조성을 알기 위해 전자현미경을 비롯해 밀도측정기, 두께측정기, 정밀저울, 적외선 분광기, 인장강도시험기, 측정계Chroma meter(CR-200, Minolta), GC-MS 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scopy, Magnum), 전처리 농축기, 항온진탕기 등의 시험 용구와 다리미, 다양한 시험용 비이커, 삼각플라스크 및 핀셋 등의 간단한 용구 등이다. 보존처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용구들이 많고 보존용구들이 비싸므로 많은 곳에서 장비를 모두 구축하고 있는 곳도 별로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보존처리에 관한 실험은 몇 곳에서 거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구 외에 일회성으로 소비되고 없어질 각종 시약, 세제, 용매, 용제 등이 있다.⁹⁾

또한 의류 세척 작업에 필요한 도구로 크게 세척통, 뜰채, 건조대 등이 있다. 세척통은 유물을 담아 빨고 행구는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행굼통까지 겸용으로 사용된다. 뜰채는 세척시 일어날 수 있는 유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최소한으로 막는 동시에 건조시에도 뜰채 위에 그대로 얹은 채 건조시켜 유물의 원상태나 원형을 유지한다. 건조대는 버선 등의 작은 소품류를 뜰채 위에서 2/3이상 건조시켜 만지거나 옮기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손 다림질 전까지 건조시키는 곳이다. 이러한 세척 용구는 크고 많을수록 작업에 유리하다. 크면 세탁용 의류에

접하지 않으므로 좋고, 많으면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공간 확보 및 시간, 경비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하여 작업을 한다.¹⁰⁾

2. 보수처리 재료

1) 지지 직물(supporting textiles, 보건, 보수천) 과 실

지지는 바느질이나 접착 기술을 사용하여 주로 원래의 것 뒤에 완전하게 또는 패치로 새로운 재료의 삽입을 요구하는 대상물을 구성하는 주요 직물의 실(yarn)에서 상당한 약함이 있을 때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것이다.¹¹⁾

오래되고 부서지기 쉬운 직물에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지는 적합한 재료를 대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받칠 것이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지 직물은 원래 직물과 조화되어야 하고 무게, 직조, 색, 섬유형태 등이 적합해야 한다.¹²⁾

가능하다면 재료도 조화되어야 한다. 실크가 사용되었다면 지탱직물도 실크, 모직이 사용되었다면 비슷한 구조를 가진 모직 천이 지지 직물로 사용된다. 지지 직물은 종종 원래직물과 어울리도록 염색되거나 구멍에서 너무 혼란되지 않도록 어둡게 염색한다.¹³⁾

실은 열화시킨 직물에서 울을 뽑아 사용한다. 과거에는 출토된 유물의 실을 뽑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실도 원직물보다 조금 약한 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은 직물을 열화시켜 천연염색한 것에서 위사(緯絲)를 뽑아 보수용 실로 사용한다.

2) 바늘과 시침핀

유물 보수에 사용되는 바늘이나 시침핀은 유물의 울보다 직경이 작은 것을 사용하여 유물에 바늘 자국이나 시침핀의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보통 바늘은 42.4x0.56mm(Tulip 6호)이며, 시침핀은 곤충 표본핀(Size 1, 37mm, Austerlitz®)을 사용한다.¹⁴⁾

3) 증류수

보수 시 사용되는 물은 오염되지 않은 증류수를 사용한다. 특히 박물관 등에 오랫동안 저장되었던 직물이나 유물들은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보수시 물을 뿌려 가면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구김 등으로 인해 불편하다. 물론 증류수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다른 물의 종류보다 섬유에 덜 손상을 입히며 그 결과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증류 후 24시간 이내의 증류수를 사용한다.

4) 자수틀/지지판

자수틀의 사용¹⁵⁾은 미국에서 가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유물이 완전하고 상태가 좋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직물 보존에서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최소로 감소시키고, 다음 작업 때까지 안전하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워낙 오래된 직물들이므로 자수틀의 사용이 드물고, 사용 시 충분히 직물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바느질용 골무, 가위, 확대경, 분무기, 자 등 다양한 종류의 보수 재료가 있다.

IV. 보존처리와 보수의 기본원칙

다양한 재료의 유물들 중 특히 손상되기 쉬운 섬유류 보존·보수는 상당히 정교하면서도 개인차가 많으며 조심을 요하는 작업이다.

첫째, 가역적인(可逆的) 방법을 택한다. 즉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보수 전 원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둘째, 고친 자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셋째, 보수는 반드시 검증된 경험자 및 숙련자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한다.¹⁶⁾

넷째, 보수 전 상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작성한다.

다섯째, 보수 절차와 처리 방법의 구체적 기록, 사용한 재료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긴다.

여섯째, 어떠한 경우도 최소한의 손질만을 한다.

일곱째, 보존 재료의 사용은 신중히 한다.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는 수리 재료를 사용한다. 유물과 같은 재질로써 손상이 심한 유물과 비슷한 상태의 인공 열화시킨 재료를 사용한다.

여덟째, 모든 손질은 미적, 역사적 및 외형 보존(保全)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¹⁷⁾

V. 출토복식의 보존처리

1. 섬유의 상태점검

처음에 수집하게 된 직물은 종류에 따라 상태도 다양할 것이다. 역사적 직물이므로 당연히 많은 퇴화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섬유를 처리할 것 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대상물을 수습 및 정리 하면서 직물의 퇴화 정도와 오염 성분, 세척 방법 등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오래된 직물은 천연섬유이다. 직물의 퇴화에 기여하는 요인은 상당히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열악한 환경, 오염, 본래부터 갖고 있는 불안정성, 부주의한 만짐, 부적합한 저장, 전시 그리고 세탁 등이다.

2. 섬유류 퇴화요인¹⁸⁾

섬유류 퇴화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빛이다. 직물이 노출된 시간의 전체 길이에 비례해서 빛에 의한 퇴화의 원인이 되므로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물을 직접적으로 보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빛은 차단되어야 한다.

둘째는 상대습도와 온도이다. 높은 상대습도는 곰팡이 성장 또는 직접적인 물 오염을 가속화한다. 습도는 공기 오염물질과 빛에 의해 퇴화를 가속화하고 색바래움과 약함을 증가시킨다. 낮은 습도는 먼지를 끌어당기는 정전기뿐 아니라 취급하는 동안 부서짐과 심한 손상을 이끈다. 온도의 영향은 상대 습도보다는 적어, 일반적으로 15°C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22℃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셋째는 미생물이다. 박테리아와 균류를 포함한 미생물은 직물 수집에서 다른 직물보다 섬유소 섬유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높은 습도와 공기 순환의 결여가 이상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휴면 상태이거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 포자의 성장을 촉진할지 모른다.

넷째는 벌레와 설치동물이다. 지역에 따라 벌레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각 지역에 있는 해충을 알고 가끔 새로운 입수가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벌레가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새롭게 입수된 직물은 격리되어 조사되고 훈증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대기 오염물질이다. 직물은 대기 오염물질에 특별히 민감하다. 직물의 색 바래고 색 변화와 약함이 섬유의 형태와 대기 중에 오염의 형태에 의존한 결과일지 모른다. 기체상태의 오염물질에 덧붙여 먼지와 같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분자물질 또한 문제이다.

그 외 pH의 적당한 유지와 불필요한 다름을 피하여 직물을 만짐으로부터 생기는 퇴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예방적인 보존처리

직물이 수집되어진 상태에서도 퇴화는 계속된다. 더 이상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유물을 안전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다.¹⁹⁾

유기물 유물은 피해를 받으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비가역적 반응이 일어나므로 보존처리보다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보존처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된 피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구명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²⁰⁾

예방은 퇴화나 손상이 일어난 후 보존이나 보수에 하는 처리보다 대상물에 더 좋고 값도 비싸지 않으며 시간도 덜 소비하고 덜 손상적이다. 예방적인 보존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함에 의해 퇴화과정을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²¹⁾

가끔 오염되고 분해되었던 직물의 외양을 치료적

인 보존차원에서 개선할 때가 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심하게 퇴화된 재료의 보존과 강화가 정당화되었을 때조차도 이전에 잘못 취급된 흔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좋은 환경에서도 대상물들을 부가적 긴장과 취급을 받게 하는 치료적 보존은 피해야만 한다.

4. 보존처리 순서 및 일반적인 처리 과정

1) 유물 수습 및 정리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기 때문에 순차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안정된 상태의 보관이 필요하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풍(擧風)을 실시하나 외국의 경우는 냉장 및 냉동 보관 등도 사용한다. 거풍은 젖은 상태의 유물을 건조시킴으로써 나중에 다시 습식시키는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섬유의 내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건조의 반복으로 높은 표면장력을 가진 물의 증발에 의한 섬유 내부구조를 붕괴시킬 위험도 있다.²²⁾ 냉장보관은 출토복식을 수습 상태 그대로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온도인 5℃ 이하에서 한다. 냉장보관을 할 때는 진공포장용 폴리에틸렌 백에 유물을 넣고 진공청소기로 비닐백 내의 공기를 뺀 후 밀봉하여 보관한다.²³⁾

2) 오염성분 구분

유물에 손상을 일으키는 오염의 종류로는 고형오염, 직물에 황변(黃變) 등의 퇴색을 유발하는 미세한 먼지나 오염물질, 직물표면의 카본블랙·먼지·고형입자, 토양·해양물질·부식산물·전분, 식물성수지, 젤라틴 등의 천연물 가공제, 염료·안료·잉크, 미생물, 대사물질 등이 있다.²⁴⁾

3) 세척방법 결정

세탁방법 선택의 기준은 직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오염성분, 염색 여부 등에 의해 적절한 세탁방법을 선택한다. 따라서 물세탁은 염색되지 않은 직물, 색소성분이 완전히 퇴화된 유물 세탁 시에 하고, 염직물의 경우는 dry cleaning을 한다.²⁵⁾ 오염이 적거나 흠뻑인 경우는 물세척하고 솜뭉치나 오염이

심한 경우 등은 음이온계면활성제와 비이온계면활성제 0.05% 수용액을 세척액으로 사용하며,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로는 Triton X-100, Ethoxylated nonylphenol(n=15) 1급 시약을 사용한다.²⁶⁾

4) 건조 및 형태보정

세탁을 마친 유물은 스테인레스 천공판에 약간의 경사를 준 상태로 일정기간 방치해 둔다. 천과 솜 등에 흡수된 과량의 물이 빠져나가기도록 하고 타올 및 흡습지를 이용해 남아있는 수분 흡수, 제거 후 나일론 망사를 제거한다.²⁷⁾

건조는 실내에서 자연 건조시키고 곤충핀, 유리핀을 사용해 주름을 펴고 유물의 형태를 고정한다. 건조기간 중 실내온도는 18~20℃, 상대습도 50~55%를 유지한다.

5) 보수와 복원

보수와 복원 전에 유물의 상태를 잘 확인 후 적절한 보수 방법 등을 선택한다. 오래되고 부서지기 쉬운 직물에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지는 적합한 재료를 대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받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수시 사용되는 직물이나 실은 유물과 비슷한 색상으로 염색하고, 비슷한 상태의 직물로 열화시켜 사용한다. 염색은 보통 천연염색하며 출토복식의 색상이 대부분 갈색이므로 오배자, 오리나무, 뽕나무, 황백, 괴화 등을 사용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재염이 필요하면 더하여 유물의 색상과 비슷한 색상을 얻는다. 매염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염색하는 복염도 사용한다. 직물의 열화는 보수할 유물의 경·위사 밀도와 섬도, 후도, 꼬임 등의 물리적 특성과 유사한 직물을 적합한 보수용 옷감으로 선택하여 자외선(UV-C lamp)을 조사함으로써 유물보다 약화된 상태를 만들어²⁸⁾ 사용한다.

6) 훈증(燻蒸)처리

유물의 보존 및 보수 작업이 모두 끝난 후 박물관 수장고 등에 보관하기 전에 유물에 남아있는 미생물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다. 의복 및 섬유류의

경우는 포장훈증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⁹⁾ 사용하는 약제는 유물에 약해와 흡착량이 적고 확산성, 침투성이 우수하며 독성이 낮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86%)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14%) 또는 이것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훈증을 실시하는 동안 훈증피복내 훈증가스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농도를 점검하였으며 적정농도(60ppm) 이하일 경우 훈증가스를 재투여하여 적정농도를 유지하였다. 보통 72시간 방치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24시간 동안 복식들을 펼친 상태로 보관³⁰⁾ 후 오동상자 등에 넣어 보관한다.

7) 저장

보존처리를 완료한 유물은 수분, 먼지, 빛, 곤충, 잘못된 취급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보관 작업이 필수적이다. 잘못된 유물 보관은 유물의 손상을 가중시키므로 유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저장방법을 선택한다.

옷은 충분히 간격을 유지해 마찰과 주름을 피해 편안하게 저장되어야 한다.³¹⁾ 따라서 직물이 저장되어지는 방법은 그것의 크기, 내용, 구성 방법에 달려 있다. 수집에 있어 각 대상물은 개별적으로 저장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VI. 출토복식의 보수처리

1. 보수유형

1) 직선 또는 곡선 유형

유물이 -, |, 7, L, O, / 등의 모양으로 파손된 경우이다. 보수용 천을 사방 2cm정도 크게 하며 보통 어슷시침이나 8자 뜨기로 고정해 준다. 홀옷인 경우는 보수천을 안에 대고, 겹옷이나 솜옷인 경우는 겹감과 안감 사이에 대고 보수한다.

2) 구멍이 난 유형

보수천을 구멍이 난 모양보다 사방 2cm 정도 크게 마름질하여 가장자리를 먼저 고정되게 맘이 크

게 시침한 후 구멍난부위에 곱게 어긋시침한다. 주변을 먼저 큰 땀으로 간단하게 고정시킨 후 구멍 부위를 0.5~1cm 정도의 시침으로 고정한다.

3) 경, 위사 어느 쪽의 실이 없는 유형

Self Couching Stitch는 시간 절약은 물론 수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올이 풀린 부분에 어떤 해도 주지 않으면서 바느질 실밥을 제거할 수 있다. 가장 자리를 8자뜨기 또는 시침질로 또는 Couching Stitch로 바느질한다.³²⁾

4) 소매 배래, 깃 등 특정한 부위에 시접 떨어지고 솔기가 뜯어진 유형³³⁾

일단 남아있어 형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옆 부분과 잘 맞추어 있는 조각으로 모양을 잡는다. 이때 뜯어진 솔기를 원래 유물의 바느질로 해 주면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성글게 바느질 한다. 먼저 보수천으로 배래나 깃 부분의 시접과 솔기 등을 정해 모양을 만든 후 보수할 부위에 끼워서 조각난 부분을 그 위에 잘 연결한 후 시침질로 보수한다.

5) 형태 파손이 심한 유형

형태 유지만을 하고 더 이상 떨어져 나간 원형을 볼 수 없을 것에 대비해 한다. 정확한 원형 파악이 곤란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최상이다. 다만 있는 모양대로 받침을 해 주어 더 이상 조각이 없어지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작업이다.

6) 해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유물이 많이 파손되었어도 옷을 해체하는 방법보다는 원래 것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지 직물을 대었다. 미국은 많이 파손된 오래된 직물 중 일부는 보존을 위해서 납작한 몇 부분으로 해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중까지 어느 것이 더 오래 옷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보존의 윤리적 측면에서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원래 바느질과 역사적 옷의 구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해체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⁴⁾

2. 보수방법

섬유류 보수란 오래됨으로 인해 직물이 해져서 미어지거나 구멍이 난 경우 또는 붙어 있던 장식이나 부속물들이 유실되어 없어진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 직물 위에 행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직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보수를 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것으로 바느질과 접착제 또는 바느질과 접착제의 혼합 등이 있다.

1) 바느질

실과 바늘로 수선하는 직물의 보존에서 다른 방법들은 대상물의 형태, 상태, 대상물의 역사적, 미적 가치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다를 수 있다.

(1) 형태

납작한 직물 또는 직물 조각의 취급은 중요한 스타일을 결정하는 '드레이프(drape)'가 있는 드레스의 취급과는 일반적으로 다를 것이다. 납작한 직물에 있어 지지 직물(supporting fabrics)은 유연성의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을 때 사용되어질 수 있다.

(2) 상태

바느질하는 것이 접착(sticking)보다 더 시간을 소모하고 더 비싸다. 그러나 바느질은 실이 너무 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³⁵⁾ 바느질은 항상 원래 상태대로 돌릴 수 있으나 접착은 접착제가 종종 직물에 붙어 직물과 함께 완전히 떨어져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3) 대상물의 가치

비용을 포함한 시간 요인은 종종 바느질 기술의 선택에서 큰 역할을 한다. 얇은 실로 작업하는 것은 두꺼운 실로 작업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계속적으로 보존 작업의 비용도 비싸다.

대상물의 역사적 그리고 미적 가치는 상당한 비용이 정당화되어지는 데 결정적이다.

출토복식 중에서도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유물의 경우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나 바늘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유물의 경우에는 현재 그대로 남겨두는 실정이다.³⁶⁾

2) 접착

접착 방법은 바늘과 실을 사용한 곳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보다 이 방법의 사용은 훨씬 오래되어, 오래전부터 많은 기(旗) 종류³⁷⁾가 전분 풀 종류에 의해 직물 사이에 또는 그 위에 접착되었다.

많은 경우 이 접착의 결과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했다. 첫째, 접착제가 직물이 습한 환경이나 누설된 물에 의해 젖었을 때 곰팡이와 박테리아에 의해 쉽게 퇴화되었다. 둘째, 옛 재료와 새 재료 사이의 접착동안 대단히 약해지거나 딱딱해지며 특히 유연성이 중요한 특징인 대상물에게 직물의 유연성이 상당히 불리하게 줄었다.³⁸⁾ 제대로 사용되었을 때조차도 접착제는 직물 섬유를 뽑거나 변색, 부서짐 등의 변형을 일으켰다.

3) 바느질과 접착제의 결합된 방법

오래된 직물의 보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보존 방법의 선택은 대상물의 본성과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여러 개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바느질 방법이 항상 접착적인 방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느질의 사용만으로 만족스런 보존이 달성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보수바느질

보존에서 바느질의 올바른 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바느질이 너무 촘촘하다면 오래된 직물을 자르게 하여 손상의 원인이 될지 모르고, 바느질이 너무 헐렁하다면 비효과적일 뿐 아니라 지지 직물과 원래 직물 사이에 움직임의 허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너무 꼼꼼하게 바느질하나 지나치게 보완한다. 바느질에서 올바른 장력을 판단

하는 능력은 경험에 달려있다. 장력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직물과 평평하게 하고, 일정한 간격과 바느질 땀의 길이 등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다.

바느질선이 풀린 곳은 본래의 바느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보존 바느질 시작과 끝 부분에 x자 모양으로 표시하고 바느질하여 나중에 재처리가 필요할 경우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는 되박음하고 실을 1~2cm 정도 남겨두기도 한다.

보수 바느질에 사용되는 솔기로는 낄솔, 가름솔, 짚솔, 통솔 등이 있으며, 바느질법 종류로는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 감침질, 시침질, 공그르기, 상침 등이 있다.

바느질에 사용되는 실은 정교한 바늘을 사용하여 직물의 실 사이에서 뽑는다. 만약 바늘땀이 굵고 많다면 실이 긴장된 상태가 아니므로 정교한 실을 꿰어도 거의 위험이 없다. 바느질 실은 직물의 실보다 더 쉽게 꿰을 수 있어야 한다. 직물에 사용된 바느질로부터 손상과 파괴를 막기 위해 바늘땀은 보다 느슨해야 한다.

Ⅶ. 결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토복식의 보존은 유기물질이므로 다른 문화재에 비해 손상을 받기 쉬우므로 항상 섬유의 상태점검과 퇴화요인을 잘 차단하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퇴화가 발생한 후 보존처리보다는 예방이 치료보다 나으므로 항상 예방적인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수집 단계에서부터 저장, 보관을 철저히 하고, 실제적인 보존처리에 들어갔을 때는 적합한 절차와 순서에 의해 보존처리를 하여 보존, 보수 과정에서 오히려 섬유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출토복식의 보수는 출토된 직물의 상태에 따라 6가지 보수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을 구분한 후 그에 맞는 바느질이나 접착 등의 보수방법을 선택한다. 대부분 바느질에 의해 행해지므로 적합한 보수바느질을 선택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복원가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사명의식이 중요하다. 외관을 아름답

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 최소한의 보수를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토직물의 과학적 보존과 보수뿐 아니라 출토직물 보관환경, 저장환경 및 저장 방법, 전시환경과 전시방법, 운송 및 포장 등 다양한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오래된 직물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에서 보존처리를 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기준안이 제시되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Jentina E. Leene, D. Sc. (1972). *Textile conservation*, Smithsonian Institution, p. 138.
- 2) 김병호 (1993). 문화재의 수리, 복원. 1993년 보존과학 연구교육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p. 1.
- 3) John C. Williams (1977). *Preservation of paper and textiles of historic and artistic value*. Advances in chemistry series 164,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p. 161.
- 4) Gabriela Krist, 한성희 역 (1991). ICCROM에서 문화재 보존전문가의 훈련과 역할. 보존과학연구, 제12집, 국립문화재연구소, p. 2.
- 5) Gray Edson (1997). *Museum ethics*. Routledge, p. 213.
- 6) Finch & Greta Putnam (1985). *The care & preservation of textiles*, B.T. Batsford Ltd, London, p. 92.
- 7) Naomi Tarrant (1983). *Collecting costum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 67.
- 8) Finch & Greta Putnam (1985). *op. cit*, p. 124.
- 9) 배순화 (1999). 출토직물 보존에 관한 과학적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 논문, pp. 27~35.
- 10) 조규복 (2000). 일선 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450년만의 외출, 안동대박물관, p. 55.
- 11) Sheila Landi (1992).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Butterworth-Heinemam, p. 40.
- 12) Finch & Greta Putnam (1985). *op. cit*, p. 92.
- 13) Hermann Kúbn (1986).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works of art and antiques-Volume 1*, Butterworths, p. 114.
- 14) 오준석, 김문숙, 전현실, 최지희 (2003). 충북 옥천 출토복식의 보존처리. 생활문화연구, 제8호, 국립민속박물관, p. 136.
- 15) Finch & Greta Putnam (1985). *op. cit*, p. 94.
- 16) 이태녕 (1993). 문화재의 보존철학과 보수의 윤리규범. 1993년 보존과학기초연수교육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p. 6.
- 17) 위의 책, p. 6.
- 18) Anne M. Lambert (1983). *Storage of Textiles and Costumes: Guidelines for decision mak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useum of Anthropology Copyright, pp. 17~26.
- 19) Konstanze Bachmann (1975). *Conservation Concerns-A Guide for Collector and Curators-*, Cooper-Hewitt, National Museum of Design,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p. 79.
- 20) 안희균 (1993). 문화재 보존과학의 개설. 보존과학 교육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p. 7.
- 21) Gray Edson (1997). *op. cit*, p. 196.
- 22) Florian, M-LE (1987). *Deterioration of organic materials other than wood*, Conservation Archaeological objects. London : Butterworths, p. 23.
- 23) 오준석, 조현숙 (2004). 남오성 묘 출토복식의 보존처리, 남오성 묘 출토복식, 국립민속박물관, p. 63.
- 24) 배순화, 이미식, 이연희 (2001). 의원군 일가 묘 출토복식 보존처리.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 115.
- 25) 박명자 (2004). 이응해 출토복식 보존처리,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p. 199.
- 26) 배순화, 이미식 (1999). 출토복식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7), p. 989.
- 27) 김선아, 이용희 (2000). 순천박씨 시조묘 출토복식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과학, 제2권, 국립중앙박물관, p. 15.
- 28) 오준석, 조현숙 (2004). 앞의 책, pp. 68~68.
- 29) 한성희 (2005). 유기물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보존과학연수교육교재. 국립문화재연구소, p. 53.
- 30) 배상경 (2003). 동래정씨 흥곡동 일가 묘 출토복식 보존처리. 경기도박물관, p. 197.
- 31) Harold F. Mailand (1980). *Considerations for the Care of Textiles and Costume*. Indianapolis museum of art, p. 12.
- 32) 오준석, 조현숙 (2004). 앞의 책, p. 73.
- 33) 안명숙, 이미식 (2004). 장흥임씨 출토의복 보수에 관한 연구. 복식, 54(8), 한국복식학회, p. 33.
- 34) Finch & Greta Putnam (1985). *op. cit*, pp. 97-101.
- 35) Hermann Kúbn (1986). *op. cit*, p. 115.
- 36) 박지선 (2005). 섬유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보존과학 기초연수교육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p. 203.
- 37) Hermann Kúbn (1986). *op. cit*, p. 115.
- 38) Jentina E. Leene, D. Sc. (1972). *op. cit*, p. 144.